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하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4:14-19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자유의 복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2월 25일	3월 3일
김종대	김주연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격주)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15) 세 가지 시험

본문 : 눅4:1-13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 그것을 영어로는 'test'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 그것을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봤을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나 사탄이 주는 시험이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험을 통과해서 나의 믿음이 한발짝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겠지만, 오히려 내 믿음이 퇴보하고 뒷걸음질 쳤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에 있다라고 시험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빵의 세상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욕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눈의 보이는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분명 먹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자 갑자기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라는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바꿨고,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번째 시험은 빵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빵은 단지 먹는 것만을 말한 다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물질이 예배의 대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시험은 사탄이 시편91편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사탄도 우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들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시편 91편을 왜곡시킨 유혹이었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복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적용하면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을 건 기도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